

# 날개 돋친 종이값, 책값마저 들먹

문예물에 큰 영향... 재생지 사용, 공동대처 등 지구책 마련에 고심

환율인상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으로 책값이 들먹거리고 있다. '제작원가의 인상으로 인해 30~32%가량 책값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이 출판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리하고, 경기침체의 상황에 처해 있는 독자들을 감안할 때 제작비 인상을 책값에 그대로 반영하기도 어려운 형편. 잇단 도매상의 부도까지 겹쳐 안팎의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출판계는 정가안정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제작비 앙등으로 치솟는 책값

치솟는 제작비 상승은 종이값 50% 인상, 원고 인화용 필름값 100% 인상, 인쇄 조판비 35% 인상 때문이다. 이는 환율상승 탓이라는 지적이다. "세계 제지시장은 안정세이며, 오히려 생산지의 가격은 하향세다. 가격 상승 요인은 단지 환율차에 있다. 용지 수입 가격은 30~40% 정도 올랐지만 도소매를 거쳐 실제 유통단계에서는 50% 정도 상승된 가격에 거래된다"고 한국제지의 허인무 주임은 말한다. 지난 연말처럼 사재기로 물량이 달려 종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던 시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제지사와 지업사들은 현금이 아니면 거래하지 않는 실정이다.

제작비 상승으로 가장 고심하고 있는 곳은 책값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예물 출판사들. 여느 출판사들이 적정가격선을 책정하기 위해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어차피 맞을 때라면 빨리 맞는 게 낫다는 심정으로 책값을 올린 창작과비평사(대표 김윤수)의 경우 시집이 5000원선, 단행본은 8000원에서 1만원을 넘나들고 있다.

문학과지성사(대표 김병익)의 채호기 주간도 "원가상승 때문에 6500원하던 책값을 7000원, 8000원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 만 원대를 넘어가면 소비자가 부담스러울 것이므로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불황의 여파로 벌써 매출이 예년에 비해 25% 정도 감소했다고 덧붙인다.

문학동네(대표 강태형)도 책값 인상이 불가피하여 2월 제작분부터는 10% 정도 인상한다. 김정순 편집장은 "시집은 4500원선, 소설은 7800원 정도로 인상한다. 제작비 인상을 그대로 반영하면 정가를 8500원에서 900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침체

## 환율인상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으로 책값이 들먹거리고 있다.

## 책값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예물 출판사는 타 출판사의

## 가격책정을 놓고 눈치작전을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원가절감 차원에서

## 재생지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시도되고 있다.

상태인 시장을 의식할 때 그것은 무리"라고 밝힌다. 해외저작물은 저작권료 때문에 더욱 곤란을 겪고 있다.

전문서적과 학술지 출판계도 타격이 크기는 마찬가지지만 고정 독자가 있어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다. 동양고전과 해외학술서적을 출간하는 동문선(대표 신성대)의 박재환 주간은 "종이값 인상에 비교적 타격을 덜 받는 편이다. 워낙 학술지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줄거나 늘어날 일이 없고, 가격 역시 그동안 인상폭을 반영해 왔기 때문에 새로 인상은 없을 예정이다. 다행히 외국서적들의 저작권료를 계약 당시 지불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문제는 책값을 올려도 원가상승으로 인한 인상폭만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유통마진과 인세가 추가될 경우 출판사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저자들의 이해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제작비 상승에 대한 대안이 책값인상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원가절감 차원에서 재생지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시도되고 있다. 외국은 학술서도 종종 재생지를 사용하고 폐이퍼백은 신문용지에 가까운 재생지를 쓰는 것이 보통이다. 재생지는 가볍고 눈에도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활용할 만하다.

최근 푸른숲(대표 김혜경)이나 김영사(대표 김영범)가 서적지를 이용한 책을 선보여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푸른숲 출판사의 경우 베스트셀러에 오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본문용지를 80g 모조지에서 서적지로 바꿔 정가를 6,000원에서 4,900원으로 오히려 18.3% 낮췄다. 1연(전지 500장)당 3만5천원하는 미색모조 대신 2



최근 종이값 상승에 따라 서적지로 인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만1천원하는 재생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본문용지뿐 아니라 표지 색상도 2도로 줄였으며 여백을 줄이고 책날개도 없었다. 날개를 없애면 권당 1백원은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푸른숲 김학원 주간은 "기간 책들 중에서 도판이 있는 책을 제외하고는 서적지·중질지를 활용할 방침이다. 제작비 인상으로 파급될 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이질을 낮추고 정가를 동결했다"고 말한다.

김영사가 최근 출간한 공병호씨의《당신의 상식, 뒤집어야 살 수 있다》도 무광 서적지를 이용해 책값을 4950원으로 책정했다. 안희근 개발팀장은 "날개를 없애고 표지도 일 반용지를 사용하는 등 제작비를 절감했다. 획기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거품이 일어나기 이전, 책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책의 외양이나 주변적 요인보다 내용이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인상된 제작비를 기준으로 권당 1200원이 드는 원가를 서적지를 사용하여 900원 정도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김영사측은 앞으로 에세이류나 문예물들에 서적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 충실한 기획, 깔끔한 편집이 필요해

문제는 재생지 가격이다. 외환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재생지와 미색모조지 가격이 비슷하거나 재생지쪽이 오히려 약간 더 비쌌다. 재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수요가 적어 대량생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몇 잡지가 환경보호를 위해 재생지 사용을 고집해 왔을 뿐, 출판사의 입장에서 값은 비

싸고 질은 떨어지는 재생지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관련기사 《출판저널》 97년 2월 5일자).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출판사들이 연합하여 재생지와 서적지를 소화해낸다면 생산이 대량으로 이루어져 가격을 더 내릴 수가 있다고 한다.

이에 한국학술도서출판협회(회장 강희일)는 지난달 15일 "책 본문용지로 모조지 이상의 고급지 사용을 자제하고 재생용지를 적극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강희장(다산출판사 대표)은 "학술지나 대학교재의 경우 무단복사가 성행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주저된다. 고급용지와 4도 인쇄를 자제하고 중질지와 서적지 사용으로 정가안정을 기하는 것이 달려나갈 줄이고 여러모로 유익하다. 종이와 책의 잔고 물량이 소화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한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분화하여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한편 책은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너무 조악하거나 덤핑물건처럼 보여서는 안된다. "이럴수록 편집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복디자인에 신경을 쓴다면 제작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아름다운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김학원 주간의 말대로 아이디어를 살린 기획, 깔끔한 편집 등 복디자이너의 역량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IMF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양질의 출판, 원가절감과 정가의 현실화, 유통의 합리화 등이 선결과제라는 것이 모든 출판인의 공통된 견해다.

— 마정미 기자